



**박문수 회장, 우석대에 발전기금 5000만원 쾌척**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4일 박문수(주)기라와가치 회장으로부터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문수 회장 박노준 총장, 장영달 명예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문수 회장은 "기업가로서 미래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것이 큰 보람 중 하나"라며 "황금백년(1984~2024)을 맞아 우석대학교에 힘을 보태고자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박노준 총장은 "우리 대학교 개교 45주년을 기념하며 10주년을 맞아 박문수 회장님께서 쾌척해 준 발전기금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박문수 회장은 지난 2018년 우석대학교 박석무 석좌교수의 다산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열린 유레카초청강연에서 강연을 받고 다산독서운동기금으로 5,000만 원을 쾌척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순창군농협 순창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순창군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이병희 농협 중앙회 순창군지부장 등 임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더욱 증진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NH농협 순창군지부는 시행 첫 해인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은행창구와 각종 행사장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임직원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을 통하여 지난 3월에도 순창군에 1,790만원을 기탁했다. 이병희 지부장은 "순창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며, 농업·농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시,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현판식 진행**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미용실, 편의점 식당 등 7 곳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24일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직원들과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은 개인사업장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며 올바른 치매 정보를 전달하는 등 치매 안전망 구축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곳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사업장은 △명광사진관 △에이스미용실 △시원커피공업사 △씨유정음료점 △도리도리 △제이스 유봉 △정춘출판 등 총 7곳이다. 이로써 시에는 총 32개의 치매안심가맹점이 운영된다. /정읍=김태환 기자

**순창군, 하반기 군민사회교육 수강생 모집**

순창군은 군민의 여가활동과 자기계발 증진을 위해 2024년 하반기 군민사회교육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설과목은 △생활양재 △광복사자 △기타교실 △도자기 공예 △미술아카데미 △노래교실 △댄스스포츠(초·중급) △서예교실 △사군자 △웰빙댄스(차차댄스) △라이프댄스(에어로빅)로 총 11개 과목이다. 이에 군은 이달 30일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을 희망하는 군민은 순창군청 주민복지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63-650-1261)로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 황인섭 교수, 몽골 '평화의 황금별' 훈장**

2015년부터 몽골 해외봉사 통해 인도적 교류·유학생 유치도

전북대학교 황인섭 교수(경상대 학 경영학파)가 한국과 몽골 간 전통적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몽골 정부 최고 영예인 평화의 황금별 훈장을 받았다고 24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황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전북대학교 해외봉사단 몽골팀을 이끌면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몽골에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해왔다. 또한 몽골의 사회화 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과 소외된 아이들을 찾아 희망을 전하는 등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특히 남원시 계약화곡인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학과장을 겸하고 있는 황 교수는



가 됐다"고 말했다.

몽골과의 인연을 글로벌대학80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남원글로벌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한 통로로 활용하면서 몽골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최근 몽골의 우수 학교 지방정부, 기업들이 전북대학교, 남원시, 남원 소재 고등학교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황인섭 교수는 "애써 하찮은 것을 베풀기 위해 한 활동들이 아니고 그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상은 사랑과 나눔의 행복 원리를 깨우쳐 준 계기

/정은성 기자

**익산 다이로움 밥차·곳간, 건강한 여름 위한 나눔 장터 운영**

익산시 다이로움 밥차와 나눔곳간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원광세마을금고와 협력해 24일 다이로움 밥차와 나눔곳간에서 여름 나눔 장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중복을 앞두고 계속되는 폭염과 잦은 호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밥차 이용자 300명에게 하절기 가정에서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당일 도시락과 삼계탕 찰밥 김자반 등의 부식품을 전달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실을 운영해 복지서비스 상담과 함께 간호사가 혈당·혈당 등 건강을 확인했다.

나눔곳간에서는 원광세마을금고의 후원으로 마련한 여름용 이불 세트, 진정용 젤, 선풍기 등 여름용품과 삼계탕, 베이킹, 과일로 이뤄진 부식품 준비했다. 물품은 읍면동장 책임제로 발굴된 취약계층 70세대에 전달됐다.

원광세마을금고 관계자는 "귀심한 더위와 갑작스러운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을 결정했다"며 "지역 사회에서 나눔 실천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터를 익산시장은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해 흔쾌히 후원을 해주신 원광세마을금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로타리클럽, 도통동 고립청년 가구 주거환경 개선**

남원시 도통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24일 남원로타리클럽(회장 유호근) 20여명과 통장 3명, 도통동 맞춤형복지팀이 고립청년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상 가정은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방문한 가구로, 부모님 이혼 후 조모와 생활하다 조모는 치매로 요양원으로 모신 후 홀로 지내는 차상위 고립청년 가구이며, 우울증으로 일상생활 및 가사일을 거의 하지 못해 주거, 위생환경이 불량한 상태였다.

대상자에게는 적합한 수급자 신청 상담을 진행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 앞 마당에 울창해진 나무를 베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물품과 쓰레기를 청소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세탁실에서 옷과 이불을 세탁했다.

또한 대상자를 일자리경제과 가가호호 생활안전센터 사업을 연계해 추가로 주거환경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내 서남방역의 재능기부로 여름철 해충 방제를 위해 소



독 방역을 진행했다. 유호근 회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집 수리, 청소 등으로 행복한 남원시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김제시 취약계층에 시원키트 기부**

김제시(시장 장성주)는 24일 전북은행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도와줄 선풍기, 쿨매트, 휴절이불로 구성된 시원키트 70상자(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과 후원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의 전북은행 부행장은 "장마철 이후 찾아오는 무더위에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주 김제시장은 "지역민들을 위해 매년 뜻깊은 나눔을 펼쳐 주시는 전북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안주 삼레로타리클럽, 드림스타트 아동 후원**

안주군 삼레로타리클럽(회장 김태형)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의 물놀이 체험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물놀이 여행 고고고' 프로그램을 위해 마련됐다.

삼레로타리클럽은 지난 2017년부터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한 고기 및 과자나눔 등 다양한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김태형 삼레로타리클럽 회장은 "아동들이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금관 교육정책과장은 "삼레로타리클럽의 후원 덕분에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물놀이 프로그램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아동들을 위해 안전하고 즐거운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안주=염재복 기자



**비나텍, 완주군에 1500만원 상당 후원 물품 전달**

비나텍(주)(대표 성도경)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24일 완주군을 방문해 1,500만원 상당의 수건 2,600장을 전달했다.

후원물품 전달식에는 정한기 비나텍(주)완주공장 사장과 주영진 프로그가 참석, 전달받은 수건은 후유회해가 심한 운주면, 화산면, 비봉면 등 수해 주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정한기 완주공장 사장은 "갑작스런 재해로 인해 고통을 받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비나텍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 비나텍(주)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비나텍은 친환경에너지 소재 부품 전문기업으로 8개의 해외특허와 186개에 이르는 국내특허를 가진 회사다. /완주=염재복 기자



**여성농민회 전북, 익산 수해복구 현장 식사 제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북도연합회(회장 송미옥)는 최근 익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과 복구 지원으로 구슬땀을 흘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24일 익산 망성면사무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전연농 전북도연합회 회원20여명이 자발적으로 밥, 국, 반찬 200인분을 준비하여 진행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시보건소 등 '두빛나래' 자조 모임 운영**

남원시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알코올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 및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두빛나래' 자조 모임을 운영했다.

두빛나래란 두개의 빛나는 날개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활력 날아 간다는 뜻으로 7월부터 시작 10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20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의 8.1%만이 정신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농협, 무료 한방의료봉사 실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본점 청사 3층 대회의실에 한방진료실을 꾸리고 조합원 및 고령인, 다문화가족 등을 포함하여 김제농협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무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5일간 진행되는 한방의료 무료봉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배현수 교수의 지도로 간호과학대학과 연합하여 참실원 피닉스 의료봉사단 50명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강마철 풍수해 대비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상담과 침, 뜸,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용조합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태기 기자